

“빛 내더라도 재정운영 확대해야”

중점 투자분야 경제·과학기술·문화체육 順

市, 인터넷 설문조사

대구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편성시 지역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 보다 더 비중을 두기를 원하는 반면 도로교통과 도시개발은 투자를 줄여야 하는 분야로 꼽혔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가 지난 6월부터 3주 동안 내년(2007년)재정운영방향에 대해 시민 264명으로부터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시민들은 '내년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대답이 59.8%(158명)로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균형재정을 해야 한다' 39.8%(105명)보다 높았다.(기타 0.4%)

재정확대운영 방법으로는 '지방채발행으로 재원조달 해야 한다' (49.4%(88명)로 '탄력세율적용으로 지방세 증수해야 한다' (3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경제분야' 23.7%(108명)와 '과학기술분야' 20.9%(96명), '문화체육분

야' 19.1%(87명)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를 줄여야 하는 분야는 '도시개발' 22.7%(109명)로 가장 높았으며, '도로교통' 19.1%(92명) 등의 순으로 꼽았다.

지역경제분야중 투자 우선 순위는 '해외시장 개척 및 유통산업발전' 17%(81명), '산업용지공급 등 투자유치활동 강화' 17%(8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경제분야에서 투자를 줄여야 하는 분야로는 '도시근교농업육성' 18.9%(90명), '섬유패션산업 육성' 18.1%(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투자를 늘여야 하는 분야는 'IT-BT_NT 등 첨단

산업육성' 31.2%(150명)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23.5%(113명)인 반면 줄여야 하는 쪽은 '산.화.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25.3%(118명)과 '한방바이오산업육성' 23.4%(109명)이었다.

또 문화체육분야에서 투자를 늘여야 하는 분야는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19.1%(91명), '체육인프라구축' 18%(86명)이었으며 줄여야 하는 분야는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20.9%(99명), '오페라 공연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17.5%(83명)순이었다.

pmang@kyongbuk.co.kr